

기업회생계획의 내용과 한인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미연방 도산법원 FTX 심의(Hearing) 요약 —

Advanced Legal P.C.

(2024 년 10 월 7 일 집필본)

HEARING 일시: 2024 년 10 월 7 일, 10:00 AM ~ 4:30 PM EST

HEARING 장소: 미연방 델라웨어 도산법원(온라인 참석 가능)

기업회생계획 통과, 그러나 주요 일정 미정

미국 동부표준시 10 월 7 일 10:00am 부터 4:30pm 경까지 미연방 델라웨어 도산법원에서 John Dorsey 판사에 의해 FTX 기업회생계획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FTX 및 공식 채권자 위원회는 이 계획을 축하하며 반대 의견은 이유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은 승인되었으나, 아직 변제일 등 일정은 확정·발표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의 종료 후 미디어 뉴스에서도 일정이 언제 발표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법원이 모든 이의제기를 거부

오늘 심의에서는 크립토 보상 여부와 정보와 언어의 장벽으로 생겨난 절차적 불편과 손해 등등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판사는 이런 지적들을 모두 거절하고 이의제기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치 애초부터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계획안을 승인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은 참석자들이 받았습니다. 변제금 지급시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미연방정부의 세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여서, 이전 논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목소리 미반영

특히, 한국인들이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었으나 이번 법원 심의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한인 채권자 한 분은 기업회생계획이 FTT 토큰을 불인정함으로써 FTX 측이 가상화폐의 가치매김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사가 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한 Advanced Legal 로펌의 변호도 판사의 제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는 등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크립토 보상 불가능, Stablecoin 아직 논의중

무엇보다 금일 심의에서 한국 채권자들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포인트는 Distribution in kind 즉, 가상화폐로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질문자들이 열정적으로 크립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FTX 측은 이미 가상 자산을 모두 현금 매각하였기 때문에 크립토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판사는 이런 FTX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FTX 는 Stablecoin(USDC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업체(Coinbase 등)를 통해 Stablecoin 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구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책에 대해 아직 그런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간편보상은 법원 일정 발표 대기중, 그러나 5A 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모두가 궁금해하던 주요 일정에 대하여는, 아직 기업회생계획 본문에 제시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7A 및 7B 등 간편보상 클래스에 대하여는 조만간 법원이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나, 오늘 법원 심의에서는 간편보상 클래스 채권에 대한 변제일 등 주요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5A 및 5B 클래스 채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계속되는 아쉬움

한편, 기업회생계획안 투표 마감일이 8 월 16 일이었는 데, 계획안 2 차 개정안이 그보다 훨씬 후인 9 월 30 일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게 검토나 추가 투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주일 후인 10 월 7 일에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더욱이, 많은 한국 채권자 분들이 기업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 본인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였다기보다는, 영어로 쓰인 난해한 법률 문서와 복잡한 온라인 작업으로 고생하며 FTX 도산 절차에서 본인이 탈락되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Advanced Legal 이 무료 변론하려 하였던 75 세 할머니의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상고해 보면, 예상밖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미연방 도산법원의 이번 FTX 계획 승인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END/

* 이 글의 일부 내용이나 논조는 Advanced Legal 이 Crypto Clinic 와 공동작성한 기사(<https://cryptoclinic.org/news/10-7-ftx->)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